

글로벌 위상 드높인 **SAMSUNG** 가전 혁신



삼성전자는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로 1위를 지켜냈다. /삼성전자

## 미국인 5명 중 1명 삼성 가전 샀다 브랜드점유율 신기록 달성

점유율 20.5%... 4년 연속 1위 행진  
냉장고·세탁기·건조기서 모두 왕좌

삼성전자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고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사수했다. 5일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국 생활가전 시장에서 브랜드별 점유율 20.5%를 기록했다. 4년 연속 1위다. 4분기에는 분기 최고치를 경신한 21.5%로 15분기 연속 1위 행진을 이어갔다. 제품별로는 삼성건조기가 20.8% 점유율로 3년 연속 1위를 지켜냈다. 4분기에만 봐도 점유율이 21.5%로 가장 높았다.

세탁기도 연간 및 4분기 점유율 20.5%로 4년 연속 1위였다. 그 중에서도 드럼 세탁기는 연간 29%, 4분기 27.5%로 압도적인 차이를 유지했다. 지난해 신제품이 새로운 색상과 빠른 세탁 및 건조 시간, 높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냉장고도 연간 23.7%, 4분기 25.5%라는 높은 점유율로 4년 연속 최고 자리를 지켜냈다. 프리미엄 제품군인 프렌치도어 냉장고가 연간 32%, 4분기 34.9%로 11년이나 1위를 수성했다. 전자레인지도 14.5%, 상단에 쿠팡, 하단에 오븐을 탑재한 레인지도 17.5%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 비스포크... 더 세로... 갤럭시 폴드 'iF 디자인 어워드' 61관왕

금상 2개 등 총 34개 제품 수상  
에어 드레서·웨어러블 등도 영예

삼성전자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0에서 61개 상을 싹쓸이했다고 5일 밝혔다. iF 디자인어워드는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컨셉트 ▲서비스디자인 ▲인테리어 ▲건축 등 7개 부문을 종합 평가한다.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냉장고와 라이프스타일TV 더 세로가 금상을 수상하는 등 총 34개 제품, 8개 컨셉트 부문과 17개 커뮤니케이션 부문, 2개 패키지 부문을 수상했다. 비스포크냉장고는 사용자 취향에 따라 색상과 재질, 타입까지 자유자재로 구성할 수 있다는 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 세로도 모바일 콘텐츠를 최적화해 즐길 수 있어서 금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그밖에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워치 액티브2, 클램프 형태의 삼성 스페이스 모니터와 에어드레서 등이 제품 부문 수상 명단에 포함됐다. 컨셉트 부문에서는 재활과 보행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썬스와, 스마트폰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해 기기간 연결을 쉽게 해주는 디바이스싱크 등이 수상했다.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갤럭시 폴드의 폴더블 UX와 에어컨 UX, 아날로그 플립차트를 연상케하는 삼성 플립 UX와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을 수상한 비스포크 냉장고.

2019년 밀라노 가구박람회 전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패키지 부문에서는 갤럭시 로고를 이용한 갤럭시 폴드 패키지, 친환경 펄프포드를 활용한 갤럭시 노트 패키지 등 2개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iF 디자인 어워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공개되며, 독일 베를린 디자인 위크 기간 중 개최되는 iF 디자인 전시에서도 소개된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 두산이 만든 '수소드론' 아프리카서 띄운다 "청소해줘" 말귀 알아듣는 코드제로 청소기

DMI, 드론포럼 참가해 사업 소개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DMI)이 5일부터 7일(현지시간) 르완다 수도 키갈리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드론포럼에 수소드론 'DS30'을 아프리카 대륙에 첫 선보인다고 밝혔다. ADF는 세계은행이 주관하는 행사로, 드론을 통한 아프리카 물류 인프라 구축 가능성 확인과 아프리카 각국 정부와 투자자 및 사업자 연결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아프리카 20여개국 장관급과 전세계 40여개국 드론 관련 사업자들이 참석한다. DMI는 ADF 기간 국토교통부가 마

련한 한국관에서 수소드론을 전시하고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두순 DMI 대표는 6일 '응급 배송을 위한 장시간 비행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도 준비했다. 이두순 DMI 대표는 "수소드론은 도로와 교통 사정이 좋지 못한 아프리카에서 긴급바이러스 백신이나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드론 앰블런스' 등으로 다양하게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DMI의 수소 드론으로 여러 산업에 걸쳐 아프리카 시장 내 물류 사업 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이 경험을 살려 글로벌 물류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LG 코드제로 씽큐 R9 보이스 출시  
AI·음성인식 강화, 일상 정보 제공  
LG전자 로봇 청소기가 더 똑똑해졌다. LG전자는 5일 코드제로 씽큐 R9 보이스(사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LG 씽큐 앱을 이용해 음성으로 로봇청소기를 제어할 수 있다. 네이비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와 연동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작동뿐 아니라 모드 설정도 가능하다. 인식 화질도 더 선명해졌다. 860x480 해상도로, 집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터링하는 흡부 2.0과, 집안 움직임 감지해 사진을 사용자에 보내는 흡가드 2.0도 더욱 강력해졌다. 클로바와 연동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

한다. 날씨와 뉴스, 시간과 교통 등 일상 정보들을 고객이 원할 때마다 전달한다. 5단계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도 적용했다. 청소기가 빨아들인 먼지를 제품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게 한다. 실내 구조 파악 능력도 업그레이드됐다. 인공지능 활용이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스마트 터보 기능은 카펫과 구석, 먼지가 많은 곳을 인지해 흡입력을 높이고 브러시와 회전속도, 주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청소시간은 최대 90분이다. 스마트 인버터 모터 P9를 탑재해 강력한 흡입력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 "LCK 스프링, 360도 VR로 시청하세요"

SKT 게임경기 VR 생중계 서비스  
SK텔레콤은 2020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스프링 개막을 맞아 '점프 VR'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LCK 리그는 1년에 정규 시즌(스프링·서머)이 두 차례 있다. 이번 스프링은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2019 LCK 서머 결승전의 온라인 최고 동시시청자 수는 약 292만명으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SK텔레콤은 '점프 VR' 앱에서 최초로 스프링 전 경기(90개)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특히 개막전, 결승전과 같은

2020 LCK 스프링 주요 경기들은 360도 VR 생중계 서비스로 볼 수 있다. 특히 롤파크 경기장 내 선수 자리 앞에 설치된 360도 VR 카메라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바로 눈 앞에서 경기하는 것 같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360도 VR 생중계는 모바일만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더 실감나게 즐기려면 VR 전용기기(HMD)를 착용하면 된다. SK텔레콤은 LCK를 주최하는 라이엇게임즈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롤 게임 인기 캐릭터 2종을 추후 '점프 AR·VR' 신규 서비스와 온·오프라인 이벤트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나민 기자 silkni@

## 현대모비스 크렐 사운드, 獨 레드닷 디자인상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프리미엄 사운드 브랜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크렐(KRELL)과 협업해 개발한 프리미엄 사운드 브랜드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CES 2020'에 현대기아차 13개 차종과 미래 콘셉트차량 엠비전 에스에 장착해 관람객에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엠비전 에스에는 가상 공간 터치 기술로 자율주행 모드에서 손짓으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게 했다. 현대모비스는 크렐의 브랜드 영상과 홈페이지 콘텐츠로 수상 영예를 안았다. 크렐 우수성과 차별화를 대중



현대모비스 크렐카오디오시스템.

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전달한 데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같은 부문에 54개국 8690건 출품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수상에 성공했다. /김재용 기자

## LGU+ 초등 학습만화 'Why?' 3D 가상현실로 만난다

7800만여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Why?'를 3D 가상현실(VR) 콘텐츠로 볼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아동도서 전문출판 기업 에리당과 손잡고 초등학생 학습만화 'Why?'를 3D VR 콘텐츠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멸종위기 동식물 ▲가상현실 증강현실 ▲토목과 건축 ▲카메라 ▲기생충 ▲의총과 해충 등 총 6권을 원작에 기반해 3D 애니메이션과 음향효과를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로 탈바꿈시켰다. LG유플러스 5G 고객들은 6일부터 'U+VR'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 후 교육 카테고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나민 기자